道, 환경 서비스기업 점검…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소재 환경 서비스기업 98개소 대상

등록기준 준수·전문 기술 인력 투입 등 중점 점검…지도·보완 주력

경기도는 5월부터 경기북부지역에서 영업 중인 환경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 서비스기업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4개 분야의 기업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외부 대기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 전문공사업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측정대행업 △환경오염 예방과 최적의 처리를 위해 분석·상담하는 환경컨설팅회사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 환경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관리대행기관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등록된 총 98개 환경 서비스기업이 대상이다. 점검반은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록된 전문 기술 인력 투입 및 사용 장비 교정 여부 △올바른 측정 방법 적용 △측정기록 조작 여부 △행정 사항 준수 여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 서비스기업이 갖춰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펴 지도·보완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환경 서비스기업의 위법 행위는 환경오염과 직결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환경 서비스기업이 관련법에 따라 적정 운영하고 있는지 자가 점검 후 그 결과를 등록하게 해 스스로 준수사항을 관리·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위주 방식에서 탈피, 기업별 애로사항을 반영해 환경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철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환경 서비스기업의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업체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주력할 것"이라며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환경서비스업체 점검결과 5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11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의정부/김완규 기자 ngkim300@naver.com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6일 상록구 사동 제2·3토취장을 방문해 사업현장을 점검했다. (사진 : 안산시 제공)

이민근 안산시장, "기업 유치 최적지" 현장 살펴

제2·3 토취장 사업현장 점검…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대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26일 상록구 사동 제2·3토취장을 방문해 사업현장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안산시는 지속 가능한 혁신 도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이끄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사동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일원에 경제자유구역(KFEZ)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 대상지는 한양대에리카캠퍼스 혁신파크, 사동89블록 등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곳과 함께 구)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제2, 3토취장 부지 등 시가 보유 중인 유휴지 등이 포함됐다.

제2, 3 토취장은 안산시 중심에 위치한 미개발지로 약 8만여 평의 넓은 부지와 인근에 대학교 및 연구소가 집적돼 있으며 산학연 혁신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 기업이 입주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물론, 재정, 입지지원 및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이끄는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이 시장은 "제2, 3토취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있어 핵심전략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지"라며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유망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해 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정성섭 기자 ssbj@hyundaiilbo.com

「용인특례시 - 노루페인트(주)」
전디자인(공공디자인)분야 사회공헌사업 업무협

용인시와 ㈜노루페인트가 '생활안전디자인 분야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사진 : 용인시 제공)

용인시-(주)노루페인트 공공디자인 사업 업무협약

도시환경·생활안전 개선 디자인 연구 등 협력

용인특례시와 ㈜노루페인트가 '생활안전디자인 분야 사회공헌 사업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성국 노루페인트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노루페인트는 용인특례시가 진행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 컬러디자인을 컨설팅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에 필요한 도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 특성을 활용해 도시환경과 생활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과 공공디자인 연구, 아이디어 발굴, 문화·교육 분야를 시와 협력해 지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전개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협력 의사를 전달한 노루페인트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이 시민의 안전한 삶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국 노루페인트 대표는 "노루페인트는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중심에 서있는 용인특례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道, '취업 스펙' 적극 키운다 미취업청년 시험응시료 지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5월부터 연간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5월부터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6개 시군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참여자를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으로 경기도 청년에게 자격기준(스펙)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에는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김포시, 파주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6개 시군이 먼저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외 수원시 등 14개 시군은 지원 근거 마련, 예산 수립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16개 시·군 청년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기준에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라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1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저가 시험을 주로 응시하는 청년들을 위해 연간 총 10만 원 금액 내에서는 3회 이상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응시료 지급은 검증 절차를 거쳐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도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민선 8기 청년 기회 패키지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번 작은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8기 대표 청년정책사업으로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3대 청년 기회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에게 미국·호주 등 해외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는 지난 24일 참여자 신청을 마쳤다. 청년들이 3~4개월간 팀을 구성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꿈을 구체화하는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사업'은 5월 중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수원/이연우 기자 leeow79@hanmail.net

인천신보, 창립기념식서 비전 토론 재단 중장기 발전 로드맵 등 발표해

인천시 GRDP
100조 시대
일하기 좋은
경제도시 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창립 25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진 : 인천신용보증재단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창립 25주년 기념행사가 27일 오후 2시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 호텔에서 개최됐다.

지난 25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25년을 대비하는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허 식 인천시 의회 의장, 윤영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등 17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창립2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종합지원기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인 미래발전종합계획 발표와 비전토론회가 관심을 모았다.

미래발전종합계획은 재단이 종합지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추진, 조사연구 기능, 인천형 상권분석 시스템 운영, 소상공인 성장자립 거점 공간 제공, (가칭)소상공인 진흥원 설립을 통한 지원기능 강화,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단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로드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발전종합계획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열린 비전토론회에는 오승설 인천소공인 협회 이사장과 김준환 한국지속가능산업운동협회 사무총장,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팀장과 인하대학교 교수진이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발전 종합계획의 실효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언을 제공했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기념 축사에서 "우리 인천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든든하게 옆을 지켜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창립 25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금융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에서 재단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허 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감염병 확산사태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컸다"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상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활약이 돋보인다"고 그간의 노력을 치하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안양시 알뜰나눔장터, 다시 시민 곁으로

평촌중앙공원서 3년 만의 재개

안양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으로 중단했던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를 3년 만에 재개장했다고 27일 밝혔다.

알뜰나눔장터는 평촌중앙공원 앞 차없는거리(평촌대로 212번길)에서 시민들이 재사용 가능한 생활용품을 교환 및 판매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4월 22일 개장해 오는 11월 11까지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존 매주 토요일에서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로 변경하고 12~16시까지 4시간만 운영한다.

또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안양시민축제(9월 23일) 등 행사일,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우천시, 혹서기(7~8월)에는 휴장한다.

취급 품목은 의류, 완구, 도서 등 중고 생활용품이어야 하며, 신상품, 음식물, 동식물 등은 제외된다.

참여는 안양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종량제 봉투를 지참해 개장 당일에 오전 10시까지 평촌중앙공원 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판매 주체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까지 확대 운영한다.

안양/이정택 기자 ljt@hyundaiilbo.com

편집=송지은 기자 [illegible]